

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주력키로

교육환경 개선 404억원 · 시설사업 165억원 등 306개 학교에 570억원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농어촌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570억원을 지원하고 복식학급 해소에 강사를 배치하고 초·중등 순회교사를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북교육청은 276개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404억원 30개 학교의 시설사업에 165억원 등 총 306개 학교에 570억원을 지원한다.

또 통학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 377대(269교)와 통학택시 49대(38교)를 지원하는데 131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수가 적은 소인수 학급의 복식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43개 학교에 강사 80명을 배치하며 18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초등 순회교사 195명, 중등 순회교사 491명을 배치하며 농어촌 기숙형 고교를 육성하기 위해 8개 학교의 사감 인건비와 운영비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110개 학교를 교육복지우선 지원 연계학교로 지정, 총 4억원을 지원하며 순창과 장수를 다목적구로 지정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를 분담해 63개 초중고교 1만4,900명에게 76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107개교를 어울림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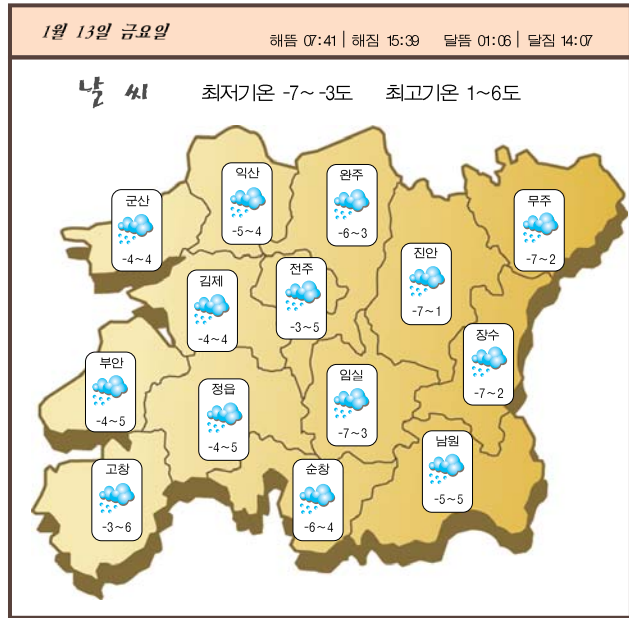


“도청 인권팀장 성폭행 분노한다” 12일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도청 인권팀장의 성폭행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 도청 인권팀장 전모(4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여대생 A(23)의 성폭행 신고로 입건돼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6개 농어촌 교육특구에 8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찾아가는 중3 진로상담 △농어촌 학생 진로체험 지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활용사업 △농어촌 방과후 운영비 △초등 저녁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내 농어촌학교는 전체 764개 초중고 중 59.4%(454개 학교)에 달하며 학생수는 21.5%(4만8,000명) 규모다.

또 전체 농어촌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가 94.8%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꾸준히 늘어 도내 다문화학생 5,500여명 중 절반이 넘는 54%인 3천여명이 농어촌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최근 귀농귀촌 현상과 맞물려 농어촌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율이 적

은 것이 눈길을 끈다. 중·고등학교도 도시지역보다 감소율이 낮다. 지난해 농어촌 초등학교는 37명 감소로 -0.29%의 감소율을 보여 시지역 2.218명 감소 2.8%의 감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41개교)에서는 102명이 늘었다. /정해은 기자



내일 사학법인 중등교사 공동전형 1차시험

전북도내 20개 사립학교법인 중등교사 공동전형 제1차 시험이 40명 모집에 1,173명이 응시한 가운데 내일 동양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이는 작년 883명에 비해 290명이 더 많은 응시인원이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신동아학원(영성고) 등 20개 법인 12교과 46명의 사립학교 중등교사 공동전형을 이날 통합고사장인 동양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립학교 공동전형은 출제본부와 고사장을 통합 운영하여 과목별 동일한 시험문제로 통합 고사장 시험을 실시하는 등 공정

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출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채용요소가 없는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를 추천받아 과목별 3배수로 인력풀을 구성한 후 추첨을 통해 과목별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했다. 전북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에 앞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5일 법인별 신규교사 임용계획을 도교육청과 법인별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하며 지난 9일 원서접수 마감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7배수까지 발표하며 이후 2~3차 전형은 각 법인별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해은 기자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 글로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전주시, 5대 전략 중심 문화·관광·체육정책 추진

전주시가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에 조성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시는 전주가 지닌 고유한 개성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문화·관광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아시아 TOP3 문화도시 도약 △1000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시민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

는 문화평생도시 조성 △세계 속의 문화체육도시 도약 △시민이 행복한 미래농업경제 육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2017년 문화·관광·체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해 천년을 이어온 전주인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관광경제 육성을 위해 전주부성 및 주변 원도심지역에 대한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역사문

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아시아 TOP3 문화도시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전주를 로마·파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재창조 복원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원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 △기차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유산 프로젝트 △영도 문화의 중심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주한지 원형 복원 및 재창조 △한복문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한지와 한복과 한식 등 한(韓)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끌어 내 천년고도의 자긍심을 꽃피우나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지정과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플래닛의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주요명소 3위 선정' 등의 기회를 활용, 관광객 1000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문화생산·향유 으뜸도시, 문화평생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국제·전국규모 대회유치,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생활권역별 체육공간 확대 등을 통해 올해를 세계 속의 문화체육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원도심학교 이전 수평공감 토론회 참가자 공모

전주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30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원도심학교 이전 관련 수평공감 토론회' 참가자를 공모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민관협력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참가자들이 10여개의 원탁에 8명씩 모여 앉아 원탁별 원도심학교 이전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수평공감토론회는 대표자가 없는 민주적 토론회 방식으로 마이크를 잡은 찬반 전문가 중심의 공청회와 달리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원탁별 공감도우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전

상학교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직적 토론회를 벗어나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 토론회방식을 시도하였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곧지중, 덕일중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 구성원은 해당 학교에서, 지역주민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ep.kr)에서 오는 15일(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신도심 입주예정자의 경우 토론회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별도의 신청없이 방청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